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5):299-309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Received June 30, 2014
Revised July 7, 2014
Accepted July 31, 2014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ang Yoon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138-736, Korea
Tel +82-2-3010-3416
Fax +82-2-485-8381
E-mail cykim@amc.seoul.kr

사도세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 사도세자, 양극성 장애 환자인가 당쟁의 희생양인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정신과학교실

정 하 은 · 김 창 윤

A Psychiatric Approach to Prince Sado : A Bipolar Disorder Sufferer or a Victim of Party Strife

Ha Eun Jeong, MD and Chang Yoon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Objectives Prince Sado was the tragic royal heir who was sealed in a rice chest and starved to death by his father, King Yeongjo. The question of whether he was a victim of party strife or his death was the result of his psychiatric disorder is still controversial.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question of whether he had suffered from bipolar disorder by reviewing his psychiatric symptoms and family history.

Methods We examined the available literature on Prince Sado and his family, particularly focusing on Hanjungnok (Memoirs of Lady Hyegyong), written by Prince Sado's wife.

Results Review of the literature showed that Prince Sado suffered from psychiatric symptoms, including depressed mood, anxiety, suicidal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and persecutory delusion from the age of 13 to 27. Many of his symptoms match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criteria for depressive and manic episodes and it is highly suspected that he had bipolar disorder. He also showed clothing phobia, which can be regarded as an obsessive compulsive symptom. Some of his relatives, King Gyeongjong and Sanggyegun, might have suffered from depressive disorder.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his symptoms suggest that Prince Sado might have had bipolar disorder. His mental disorder might explain in part the cause of his death.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5):299-309

KEY WORDS Prince Sado · Hanjungnok · Bipolar disorder.

서 론

세자의 신분이었지만 아버지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27세에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첫 아들을 잃고 수년간 후사가 없다가 41세에 얻은 아들로, 출생 즉시 원자가 되고 이듬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을 만큼 영조의 기대를 받았다.¹⁾ 그러한 영조와 세자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 세자를 죽음까지 이르게 할 만큼 악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에 세자가 당시 실세를 잡고 있던 노론과 뜻을 달리하여 당쟁의 희생물이 되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세자에게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었다는 것이다.²⁾

인조반정 이후 이어진 왕위계승을 둘러싼 문제가 치열한 당파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는데, 영조는 노론이 선택한 왕이었다.³⁾ 영조는 평생 두 가지 콤플렉스를 안고 살았는데, 영조가 숙종과 숙빈 최씨의 아들로서 서자라는 것이 첫째이고, 영조의 이복 형이며 소론의 지지를 받았던 선대왕인 경종에 대한 독살설이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이 둘째이다.⁴⁾ 그러한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경종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것은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노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도세자의 태도는 노론이었던 부인 혜경궁 홍씨를 비롯한 외척들에게는 당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³⁾ 따라서 세자가 당쟁의 희생양이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노론이 세자를 국가적 반역자로서 죽였다고 여긴다.⁵⁾

사도세자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가 기록한 한중록⁶⁾에서 사도세자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평상시에 온전하게 대리청정을 잘 수행하다가도 어떤 때는 제멋대로 행동하며 나인들을 죽이기도 하는데, 이는 사도세자의 정신증상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사도세자의 장인인 홍봉한이 “그의 증상에 대해 무엇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없고, 병이 아닌 것 같은 병이 수시로 발작한다.”고 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들며 사도세자의 양극성 장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7,8)}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세간에 자주 언급이 되곤 한다. 그러나 그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여전히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 문헌에서 사도세자의 정신질환, 구체적으로는 양극성 장애 가능성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검토를 한 바는 없다. 정신역동과 관련된 논문이 있으나 정신병리 측면에서 양극성 장애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를 통하여 사도세자에 대해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방 법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문헌고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한중록에 사도세자의 언행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큼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한중록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도세자에 관한 기존의 정신분석적, 심리학적 논문 및 역사학자의 저서와 인터넷 자료에서 관련 정보를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로 진단적 측면에서 사도세자가 보인 증상을 기술하고, 증상의 특성, 지속기간 및 삽화 간 기능 등을 확인하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심리적 관계를 검토하였다. 둘째로 영조, 숙빈 최씨, 정조 등 사도세자의 직계 혈족을 중심으로 가계도를 확인하여 정신증상 유무를 파악함으로써, 유전적 요인이 사도세자의 정신증상 발생에 기여했을지 정신과적 질환의 가족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 과

진단적 측면

정신과적 진단

한중록에서 사도세자의 우울증상 혹은 불안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기술은 영조24년(1748년)의 기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소조께서는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이나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므로, 사악하고 망령된 생각이 다시 들어 병이 점점 깊어지는 징조가 드러났다”고 하였다. 영조24년(1749년)에는 “처음에는 서운하고 섬뜩하신 것이 점점 성화가 되어서 우실 적도 계셨다”, “그 후는 하늘을 매우 무서워하시고 우레뢰, 벼락 벼 같은 글자를 보지 못하시며, (중략) 우추경을 보신 이후는 천둥 때면 귀를 막고 엎드려 다 그친 후에 일어나 시니”라 하였고, “늦은 밤에 정신이 어둑하시어 ‘뇌성보화천존이 보인다’ 하시고 무서워하시며, 이로 인하여 병환이 깊어 드시니 원통하고도 서럽다.”는 기록을 통해 극심한 불안증상 혹은 환시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병환이 안 나오는 때는 인효가 통달하시어 거룩하심이 미진한 곳이 없으시다, 병환이 나오시면 곧 탄사람 같으시었으니, 어찌 이상하고 서러운 일이 아니리오.”라는 기록을 통하여 그 증상이 삽화적이며, 삽화 간 기간에는 관해 상태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조28년(1752년)부터 영조30년(1754년)의 기간에도 간헐적인 불안증상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신년(1752년) 겨울에 그 증세가 나타나서 계유년(1753년)은 경계증처럼 지내시고, 갑술년(1754년)도 그 증세가 때때로 나와 점점 고질이 되니”, “평소에도 꾸중을 많이 들었는데 그 때 여러 번 업교가 그치지 않으시니,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지내셨다.”는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조31년(1755년)과 영조32년(1756년)에는 연이어 우울삽화를 의심할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영조31년에 “경모궁의 병 증세는 종이 물에 젖듯이 하여, 문안도 더 드물게 하시고 강연에도 전념하지 못하시며, 마음의 병이라 늘 신음이 잦아서 병폐하신 모양이니”, “어머님의 병환을 뵈러 가셨다가 아무런 잘못하신 일도 없이 그렇게 되셨으니, 싫고 원통하여 ‘자살하련다’ 하시고 겨우 진정은 하셨다”고 하였다. 우울감, 의욕저하와 함께 자살사고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조32년에는 “병환이 점점 깊어 강연도 더듬으시고, 취선당 밖에 있는 소주방 하나가 깊고 고요하다면서 많이 머무르시니, 어느 날이 근심이 안 되며 어느 마디가 초조하지 않으리요. (중략) 소세(얼굴을 씻고 빗질하는 것)도 단정치 않으셨다.”, “경모궁께서 소리 높여 (중략) 저런 놈들을 무엇에 쓰리요!” 하고 다 쫓으시니, 그 지나치신 거동과 모습이 어떠하셨겠는가?”, “그 날 그 일을 지내시고 가슴이 막혀서서 청심환을 잡숫고 기운을 내시며 ‘아무래도 못살겠다’ 하시고서, 저승전 앞뜰에 있는 우물로 가서서 떨어지려 하시니, 그 놀라운 상황과 위태로운 모습이야 이를 것이 어디 있

으리요. 가까스로 구하여 덕성함으로 나오시게 했다.”고 기록하였다. 우울감과 함께 기분과민성, 흥미저하를 보이며, 자기관리도 소홀하고, 자살행동까지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영조32년(1756년) 6~7월에는 조증삽화 발현이 의심된다. “5월의 변 후에 놀라셔서 병환도 더하시고 외조를 보는데 지나친 행동도 하시며 (중략) 나인들을 데리고 노시니, 그 내관들이 나팔 불고 북 치는 것까지 했다고 한다.”, “대고를 당하시매, 슬피하시고 마음을 많이 쓰시니 병은 점점 더하시고 지나친 행동이 잦으신즉, (중략) 6~7월의 한창 더운 가운데 통명전에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받음이 잦으신즉, 그대로 격화와 병환이 점점 더하셨다. 그래서 내관들에게 매질하시는 것이 그 때부터 더하시었다. 초상에 기록히 서러워하시던 일과 비하면 상중에 매질은 잘못하시는 일이며”를 통해 고양된 기분 및 과민성과 같은 기분증상을 짐작할 수 있다. 영조32년(1756년) 8월에는 “처음으로 명릉에 수가를 하시니 (중략) 그런 일은 조금도 병 있는 이같이 앓으시고 순조롭게 일을 이루시고 환궁하심을 스스로 큰 경사처럼 아셨다.”고 하여 관해를 시사하는 기록이 있으나, 같은 해 9월에는 “그 해 윤9월에 청선이 태어나니, 전 같으면 오죽 좋아하시리요마는 들어와서 보신 일도 없으니, 병환이 심함을 가히 알 수 있었다.”고 하여 또 다시 기분삽화가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영조33년(1757년)부터는 확연하게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6월부터 화증이 더하셔서 사람 죽이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때 당번내관 김환재를 먼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서 나인들에게 호시하시매, 내가 그 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흥하고 놀라움에 어찌 이를 수가 있으리요. 사람을 죽이고야 마음이 조금 풀리시는지, 그 때 나인 여럿이 상하시매”, “7월에 (중략) 병환은 점점 더 하시어 사람을 죽이시는 길이 나매, 인심이 두려워하고 언제 죽을지를 몰라 하니 그런 모양이 어디 있으리요.”, “그 해 9월에 (중략) 그 사이에 나인들을 가까이 하시니 순종치 않으면 쳐서 피가 흐르고 살이 터진 후에라도 가까이 하시니, 누가 좋아하리요.”, “가까이 하신 것들이 많으나 순간적으로 그러시어 대수롭게 여기시는 일이 없고, 자식을 낳은 양제라도 조금도 용서하심이 없더니”, “그 밤에 대조께서 거려청 공목함으로 동궁을 부르시어 또 꾸중을 많이 하시니, 서러워 그 길로 양정함 우물에 빠지시매, 그런 망극한 광경이 어디 있으리요. (중략) 대조께서 가뜩이나 멀리 하시는데 우물에 빠지시는 괴상한 행동까지 보시고 어찌 진노를 안 하시며”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개월간 궁내에서 나인의 머리를 베는 등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기분 과민성을 보이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조증삽화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혜경궁 홍씨는 영조33년(1757년)부터 사도세자가 옷을 입지 못하던 병인 의대병이 나타나 영조34년부터 심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대병환이야 더욱 형용할 수 없고 이상한 괴질이니, 대저 의대를 한 가지나 입으려 하시면 열 벌이나 이삼십 벌이나 하여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놓고, 혹 태우기도 하고, 한 벌을 순하게 갈아입으신다면 천만다행이며, 시중드는 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의대를 입지 못하시어 당신이 애쓰시고 사람이 다 상하니, 이 아니 망극한 병환이냐! (중략) 그 병환이 6, 7년에 그렇듯 하여 극히성한 때도 있고 적이 진정한 때도 있었다. 그 의대를 입지 못하여 애를 쓰시다가 어찌하여 좀 증세가 나아서 한 벌을 천행으로 입으시면, 당신도 무척 다행한 것 같이 입으시고 더럽도록 입으시었으니, 그 무슨 병환인가? 천백 가지 병중에 옷입기 어려움 병은 자고로 없는 병인데, 어찌 지존하신 동궁이 이런 병에 드셨는지 하늘에 물어도 알 길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세자가 정성왕후 인산 때 슬피 우느라 흐트러진 옷 매무새에 지적을 받은 후 다시 책망을 안 듣기 위해 옷을 입을 때마다 심히 신경을 쓰다가 의대병이 생겼다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⁹⁾ 이러한 증상 또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며 기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34년(1758년) 이후 영조35년(1759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또 다시 관해를 시사하는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그럴 때는 병환이 계신 이 같지 않고, (중략) 소조께서 그 병환 중에 능히 그 말씀을 하시는 밝은 소견을 들으니 (중략) 이는 천질이 착하심이다.”, “정성왕후, 인원왕후 두 분의 소상을 차례로 무사히 지내옵고, 두어 달은 극한 탈 없이 지나가고”, “기묘년(1759년) 3월에 세손 책봉을 정하시고 (중략) 소조께서 그 병환 중에도 세손 책봉하신 일을 기특하게 여기어 기뻐하시고, 병 증세가 심하실 때는 처자를 알아보실 길이 없으나, 세손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는 이를 것이 없어 (중략) 이리실 때는 어찌 병환 계신 분 같으리요.”

그러나 영조36년(1760년)부터 영조37년(1761년) 3월까지 또 다시 조증삽화가 시사된다. “그 해는 병환이 더욱 깊이 심해지시고 또 대조께서 책망하심도 나날이 심하시니, 격한 감정은 점점 커지시며 의대병도 더 극심하게 되셨다. 홀연히 지나가지 않는 이가 뵈다 하시고, 다니실 때는 미리 사람을 내놓아 금하시고, 지나실 때 혹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른이라도 보이면 그 의대를 못 입으시어 벗으시고, 비단 군복 한 짝을 입으려 하시면 군복 몇몇 벌을 짝을 지어 무수히 불태우시고 겨우 한 벌을 입으셨으니”에서는 피해사고와 더불어 환시도 의심할 수 있다. “격화가 대단히 오르시어, 그 날부터 부모를 위하시고 공경하시는 말씀을 못하시고, 상말로 천지를 가리지 못하듯이 노엽고 서러워 ‘살아서 무엇하리’ 하시

며 선희궁께 불공손한 말을 많이 하시고, 세손 남매가 문안할 때 소리를 높여 '부모를 모르는 것이 자식을 알랴. 물러가라' 하시니, 어린 아이들이 (중략) 그 엄하신 호령을 듣고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던 그 모습이 오죽 하리요.", "병환이 점점 깊으셔서 질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를 자애하시던 것을 잊으시고" 등의 기록이 그 근거이다. 효를 중시하던 시대에 생모에게 불공손한 언행을 보이는 세자의 모습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등의 기술을 통해 현실 판단력의 저하를 생각할 수 있다.

영조37년(1761년)의 기록에는 사도세자의 폭력행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소조께서 바둑판을 던져 왼쪽 눈이 상하여 하마터면 눈망울이 빠질 뻔하였으나", "신사년(1761년)이 되니 동궁의 병환이 더욱 심해지셨다. (중략) 병환이 나오시면 사람을 상하고 마시니, 그 의대 시중을 현주 어미가 들었는데 병환이 점점 더 하셔서 그것을 총애하시던 것도 잊으신지라, 신사년 정월에 미행하려 하시어서 의대를 가져오라고 하시다가, 그 병이 발작하셔서 그것을 죽도록 치고 나가시어 즉각 대궐에서 그릇된 일이 일어났으니", "내관, 나인들이 동궁에 의해 상한 것들이 많으니 (중략) 내수사의 일을 더디게 거행한 일로 인해 죽이시고, 출입당번 내관도 여러 명 상하고, 선희궁의 나인 하나도 죽이시어 점점 어려운 지경이 이르렀다." 세자빈에게 바둑판을 던지고, 자신의 아이를 낳은 후궁을 죽도록 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여러 내관과 나인을 죽이는 행동은 정신증상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보인 폭력행동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정월, 2월, 3월을 다 미행만 하시어 궁밖 출입이 잦으시니", "신사년의 미행 때 여성 하나와 관서 미행 때 기생 하나를 데려다가 궁중에 두시고, 잔치를 하신다 할 때는 사랑하시는 궁중의 천한 계집들과 기생들이 들어와서 잡스럽게 쉬었으니, 만고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으리요" 역시 조증삽화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영조37년(1761년) 5~9월에는 기분증상이 관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행 후 적이 마음을 잡으시는 듯하여 차대하시니 강연도 하시니 (중략) 하령을 엄히 하셔서 강충의 말씀까지 하시는 모습이 병환이 나오신 듯하시니 (중략) 5월 10일 후에 처음으로 경희궁에 오셔서 웃어른께 문안하시어 천행으로 탈없이 다녀오시니", "나를 몹시 미워하셔서 점점 어려워니, 나는 폐하고 세손은 효장세자의 양자를 삼으면 어찌할까 보네" 하셨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병환증세도 없고 처연히 그러시니 (중략) '나만 그리하여 이리 되고 병이 이러하니, 어디 살게 하였는가' 하셨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어서 영조37년(1761년) 10월부터 병세가 더 중하기 시작하여 영조38년(1762년) 5월까지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조께서는 날로 쇠고 날로 병환이 더하셔서, 부왕께 하신 불공하신 말씀이 점점 가없으시니 이 아니 망극한가", "3월은 망극한 가운데 지내고 또 4월이 되었다. 거처하는 곳 모두가 어찌 산 사람이 거처하는 곳 같으리요. 죽은 사람의 빈소 모양 같기도 하고, 다홍색으로 명정 모양 같은 것을 해서 세우고, 영침하는 형상처럼 해놓고, 그 속에서 침수하시고 전치를 하시다가, 밤이 깊어 상하가 다 지쳐서 자면 상 위의 음식은 가득하여 그 모습이 다 귀신의 일이니, 하늘이 시키는 일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맹인들도 불려서 점을 치게 하시다가 그것들이 말을 잘못하면 죽은 것도 있고, 의관이며 역관이며 궁중에서 부리는 사람이 죽은 것들도 있고 병신 된 것들도 있어서, 하루에도 대궐에서 죽은 사람을 여럿 저내니, 중외의 인심이 소조를 두려워하고 원망하여 발을 잘못 디디면 언제 죽을지를 몰라하며, 당신의 타고난 기질은 진실로 거룩하시건만 그 착하신 본성을 잃으시고 아주 그릇되시니, 이를 어찌 차마 말할 것인가.", "홀연히 5월에 땅을 파고 집 세 칸을 짓고, 사이에 장지문을 해 달아서 마치 묘의 속같이 만드시오, 드나드는 문을 위로 내어 널판자 뚜껑을 하여 사람이 몸을 겨우 눌러 다닐 만하게 하고, 그 널판자 위에 띠를 입혀 덮었다. 그리하여 땅 속에 집지는 흔적도 없게 되자 묘하다 하시고, 그 속에 옥등을 달아 놓고 앉아 계셨다. (중략) 다 흥한 징조를 귀신이 시키시는 듯이 그러시매 인력으로 어찌하리요.", "선희궁께서 세손 가례 후 처음으로 세손빈도 보실 겸 아랫대궐로 내려오시니, 소조께서 반갑고 귀하게 대접하심이 과중하셨는데, (중략) 그 모양이 당신으로서는 극진히 효로 받드는 일이지만, 선희궁께서는 당신이 그러시는 것이 당신의 병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어 망극하게 여겨 깜짝 놀라시고, 점점 어쩔 수 없는 지경으로 생각하시어", "근래에는 눈에 사람만 보이면 일이 나니, 교자에 가마뚜껑을 하고 사면에 휘장을 치고 다니시고, 춘방관과 밖엔 또 학질이 있다 하고 계시었다.", "아무리 국홀인들 상장이 하나밖에 어찌 있으리요마는, 이상하신 병환으로 상장을 여러 번 만드시오 일생 사랑하여 좌우에 떠나지 않는 것이 환도와 보검들이니, 생각밖에도 그것들을 상장 모양같이 만들고 그 속에 칼을 넣어 뚜껑을 맞추어 상장같이 해 가지고 다니시며 내게도 보이시기에 끔찍하고 놀랍게 여겼었다. (중략) 병환은 모르시고 다 불효로만 탓하시니, 그저 지극히 원통할 뿐이로다" 등에서 부적절하고 기이한 언행 및 폭력행동과 과장된 행동을 통해 조증삽화가 재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사도세자의 병 전 성격 및 영조와의 관계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어릴 때에 덕기가 이상하시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 일상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기상이 엄중하시며, 말이 없어 뉘는 자가 어른 임금을 모시는 것과 다르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천성이 크게 너그러우시고 도량이 활달하시며 사람에게 신의가 두터우셔서, 아랫사람에게도 믿음직하게 말씀하시고”, “타고난 성질이 침착하고도 무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라 하며 세도세자가 성군의 자질을 지녔음을 기술하였다. Lee¹⁰⁾ 또한 영조는 성격 변화가 심한 임금이었다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인 반면, 세자는 영조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그 누가 무엄한 일을 해도 쉽게 분노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성격이 과격하고 급했던 영조는 수시로 세자를 불러 꾸짖어⁷⁾ 충돌하였고, 혜경궁 홍씨는 결국 이로 인해 세자가 천성을 잃기에 이르렀다 쓰고 있다. “경모궁은 말이 없이 행동이 날래지 못하고 민첩치 못하시니, 덕기는 거룩하시나 모든 일에 부왕의 성품과는 달랐다. 보통 때 물으시는 말씀이라도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대답하시고, 문의하실 때도 당신의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하시어 즉시 대답하지 못하셔서 늘 영모께서 갑갑해 하셨으나, 이 일도 또 화변의 큰 실마리가 되었다.”, “당신이 부모님께 속으로는 본래 정성은 거룩하시지만, 민첩하지 못하여 품고 계신 정성을 100분의 1도 못 드러내시니 (중략) 점점 두렵고 무서운 것이 병환이 되어서 화가 곧 나시면 풀 데가 없었다.”

Lee¹⁰⁾은 영조와 세자의 불화와 관련해 『한국당쟁사』(성낙훈)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세자가 노론의 일을 말하다가 노론의 행위를 미워하는 기색을 보였고, 영조가 세자를 불러 꾸짖자 세자가 “황숙(경종)께서는 무슨 죄입니까”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영조는 세자의 대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오랜 세월 영조를 괴롭혀 온 상처이자 콤플렉스인 경종 독살설을 세자가 건드렸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또한 영조는 세자의 복종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세자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했다고 전한다.¹¹⁾

영조가 세자 나이 5세부터 24세까지 여러 차례 세자는 전혀 원하지도 않는 왕위를 물려준다고 함으로써 세자가 그때마다 죄인으로서 석고대죄를 해야만 했는데, 이것은 영조가 경종으로부터 왕세제에 책봉된 후 대리 청정의 명을 받았다가 번복당하는 악몽의 과정에서 얻은 자신의 병증을 세자에게 반사시키고 투영시키는 행위였다고 보기도 한다.⁵⁾ 또한, 정순왕후, 숙의 문씨 등의 무고에 따라 영조가 자주 세자를

불러 질책하였는데, 이 때문에 세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어린 세자가 계속되는 정신적 불안과 공포, 분노 속에서 정신적 병증을 얻었고, 병증이 점차 심화되어 전위소동이 있는 후 피해망상이 심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⁹⁾

가계도 및 정신과적 가족력

많은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왕가 혈족의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정신과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으나,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조, 영빈 이씨, 정조 등 사도세자의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정신과적 가족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사도세자의 정신증상에 기여하였을 수 있는 유전적 요인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그림 1).

18대 현종

현종(1641~1674년)에 대해서는 정신증상과 관련된 특이점을 찾기 어려웠다. 현종의 딸들인 숙종의 세 누이는 모두 8~20세의 어린 나이에 사망하여 관련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신병력 유무를 알 수 없다.

숙종의 모인 명성왕후(1642~1683년)에 대해서는 지능이 비상하고 성격이 과격하여 궁중의 일을 처리할 때 감정적이고 거친 면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숙종 등극 이후에는 공공연히 조정의 정무에까지 간여하여 서인을 편들다가 남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특히 1675년 ‘홍수의 변’ 때는 대신들 앞에 나와 울부짖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를 유발하기도 했다고 전한다.¹²⁻¹⁴⁾ 이것을 병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명성왕후는 감정기복이 있고 다소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19대 숙종

숙종(1661~1720년)은 증전과 후궁들에 대한 애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술한 옥사를 유발하였다고 하며,¹⁵⁾ 기사환국, 갑술환국, 무고의옥 등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성격이 폭급하고 애증의 편향과 희노의 변화가 심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⁹⁾ 하지만 그가 조선왕조를 통틀어 당파간의 정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에 비상한 정치 능력을 발휘하여 왕권을 회복하고 사회를 안정시켰던 것으로 보아¹⁵⁾ 뚜렷한 정신적, 기능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정상의 범주 내에서 다소 감정기복이 있는 성격이었을 수는 있다.

영조의 모인 숙빈 최씨(1670~1718년)는 어려서 가족이 전염병으로 모두 죽어 그의 가족력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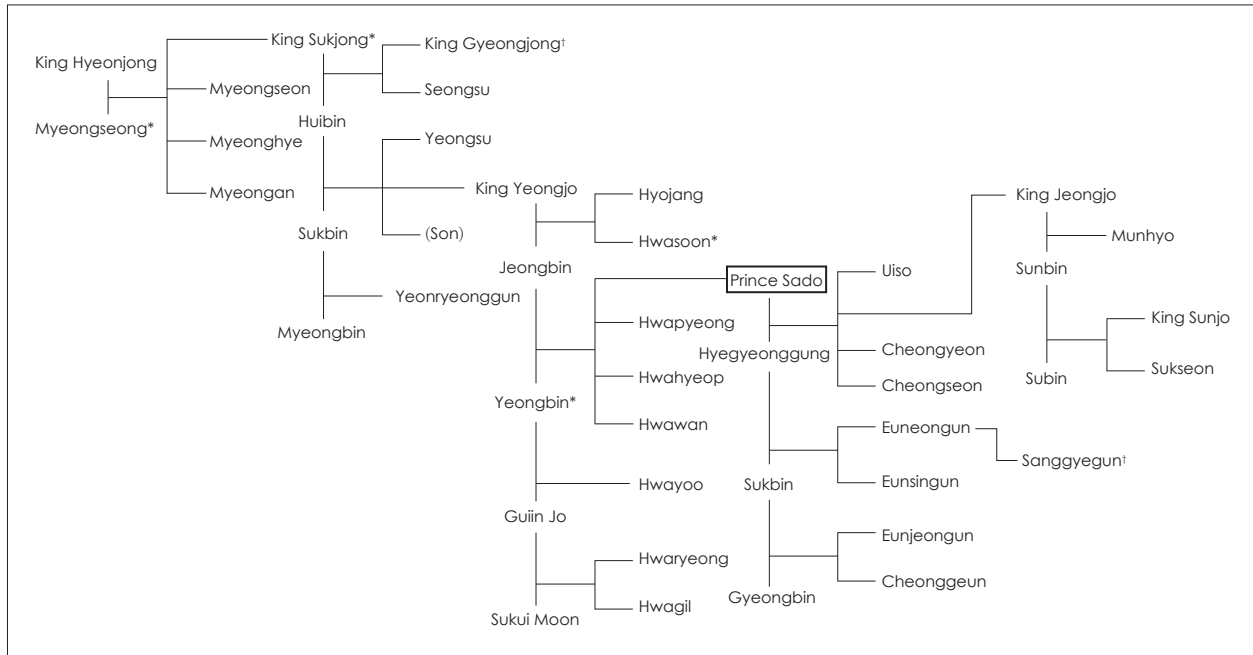


Fig. 1. Pedigree of Prince Sado. * : Cannot be excluded from having mood disorder, † : Highly suspected of having depressive disorder.

기분증상 등과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⁶⁾

영조의 친형제인 영수는 생후 2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조선시대의 왕실족보인 『선원계보기략』에 따르면 영조의 아래로도 왕자가 있었으나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한다.¹⁶⁾ 영조의 이복형제 중 성수는 생후 열흘 만에 급사하였고,¹⁷⁾ 연령군(1699~1719년) 또한 21세에 요절하여¹⁸⁾ 정신증상 유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영조의 이복형제 중 희빈 장씨의 아들이자 조선의 20대 왕인 경종(1688~1724년)에 대해서는 우울증¹⁹⁾ 또는 정신병 가능성을 시사하는 기록이 많은 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Lee²⁰⁾은 경종 4년 “심화가 불어나 화열이 오르내려서 정신이 아득하고 권태가 있어 치료하기 힘든 지경이니”라는 기록을 언급하며, 경종의 오래된 병은 정신적인 압박감에서 오는 심화로 인한 증세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경종3년(36세) 임금에게 담화가 있었다고 하며, 성후가 미녕하여 승지가 급작스럽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도록 청하고 있다 하였다. 경종4년(37세)에는 임금의 병이 더욱 위급해지고 한열이 있으며, 동궁 때부터 쌓인 걱정과 두려움이 고질이 되어 화열이 치성하면 혼미하기도 하였다고 하고 탕약을 진어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Lee²¹⁾은 실록 곳곳에 경종의 “이상한 병”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들며 경종이 “형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앓고 있었다 하였다. 그는 고종의 어의이자 동계의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영훈의 기록을 언급하면서, 경종이 먹은 탕약으로 추정되는

소조중탕의 효능에 대해 “번열이 몹시 나서 담이 말라 멍치고 머리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 눈시울이 짓무르면서 목이 메어 전광증이 생기는 증상에는 대·소조중탕이 좋다.”고 하였다. 경종에게 쓰인 또 다른 처방인 곤담환 또한 속을 풀고 소원이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전광증의 치료에 쓰인다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광증은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뇌 구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정신 착란이나 정신분열증의 여러 증상을 가리키는 질병으로 때 아닌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소조중탕과 곤담환의 공통적 치료 목표는 전간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간질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경종의 증세에 대해 『단암만록』에서 “숙중 승하 시 곡음을 하는 대신 까닭 없이 웃으며 특하면 오줌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²¹⁾ “몽유병자에 정신 이상인 듯하고... 어린애모양 소변까지 여러 번 싸서 그 앞은 자리가 마를 새가 없었고 머리는 생 빛질을 안 했다. 그가 변질한 이유는 모친의 비극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사사람과 좀 달랐다”²²⁾와 같은 기록을 보면, 경종에게 우울증상이나 정신병적 증상과 같은 정신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1대 영조

영조의 성격이 성급하고 변덕이 많다는 점은 앞서 기술하였다. 이에 반해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1764년)는 매우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이러한 성격이 감정의 기

복이 심한 영조가 1남 3녀를 낳도록 그를 사랑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⁹⁾ 영빈 이씨는 사도세자의 삼년상 상복을 벗은 지 일주일 만에 죽는데, Jeong 등²³⁾은 영빈 이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혜경궁 홍씨는 영빈 이씨와 사이가 아주 좋았기에 영빈 이씨에게 병이 있었다면 혜경궁이 자주 병문안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혜경궁의 일기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는 혜경궁 홍씨의 일기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영빈 이씨가 죽기 전까지 일기가 잘 기록되어 있다. 영빈 이씨가 죽은 다음에 갑자기 기록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는 영빈 이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혜경궁 홍씨가 거의 공황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영빈 이씨의 가장 유력한 사인을 자살로 본다.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사도세자의 생모에게 기본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빈 이씨는 세 딸을 두었는데, 화평,^{24,25)} 화협옹주^{24,26)}는 모두 20세경 요절하였고, 특히 화평옹주에 대해서는 한중록에서 성격이 매우 온순하며 수용적이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화원옹주는 사도세자의 반대편에 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고²⁷⁾ 한중록에 그에 대해 “대저 그 사람의 성품이 여편네 중 남을 꺾으려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권세를 좋아함이 유별해서 온갖 일이 일어났다”고 기술하였는데, 기분증상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도세자의 이복 남매들 중 효장세자(1719~1728년)는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고,²⁸⁾ 병에 대한 특별한 기록도 없다. 화순옹주에 대해서 혜경궁 홍씨는 온순하고 공손하다 기술하였다. 화순은 남편이 죽자 식음을 전폐하고 사망하였고 사후 열녀문이 세워졌는데,²⁹⁾ 이것이 시대상을 반영한 행동일 수 있으나 우울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화유옹주, 화령옹주, 화길옹주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도세자

사도세자는 정조를 포함하여 다섯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딸을 두었다. 의소세손(1750~1752년)은 일찍이 사망하였고, 은언군,³⁰⁾ 은전군^{24,31)}은 각각 48세, 18세에 사사되었으며, 은신군³²⁾ 또한 유배되었다가 어린 나이에 사망하여 자세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1752~1800년)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불행을 겪었으나 즉위한 이후 문화정치를 펼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정신증상을 의심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연군주와 청선군주에 대해서는 혜경궁 홍씨가 온화하다고 기록한 것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청근군주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

려웠다.

사도세자의 자손들 중 40세 이상 생존한 혈족은 정조와 은언군이 유일했는데³⁰⁾ 은언군의 세 아들 중 큰아들인 상계군은 1779년 정조3년 모반죄로 몰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음독 자살하였다고 전해진다.^{33,34)}

고찰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의 자전적 회고록으로, 사도세자의 빈으로서 사도세자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혜경궁 홍씨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한중록은 사도세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홍씨 집안을 방어하기 위해 혜경궁 홍씨가 사도세자 사후에 기록한 것이므로 내용이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세도세자는 당쟁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 설명하기도 한다.³⁵⁾ 하지만 한중록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신병적 증상에 들어맞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정신증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순전히 상상력을 동원하여 기술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Jeong 등²³⁾은 사도세자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여주는 사료는 한중록만이 아니고, 『조선왕조실록』과 『폐세자반교』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세자가 뒤주에 갇힌 날의 실록에는 “대리한 후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중략) 정축년·무인년 이후부터 병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서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환시를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 (중략) 환관·기녀와 함께 절도 없이 유희하면서 하루 세 차례의 문안을 모두 폐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⁶⁾ 그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은 제왕가에 대한 충성에 기초한 책이므로 제왕가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정조는 사도세자가 죽기 전 5년의 기록을 각별히 관리하여 『영조실록』의 편찬에 적극 개입했다고 한다. 따라서 신하들이 당대 왕의 아버지에게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는 “병이 발작을 일으켜 본성을 잃었다”는 정도의 서술만으로도 사도세자의 광증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²³⁾ 『폐세자반교』에도 “세자가 내관, 내인, 하인을 죽인 것이 거의 백여 명이며, 그들에게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차마 볼 수 없는 일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중략) 기생, 비구니와 주야로 음란한 일을 벌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²³⁾

노소당쟁이 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다고 설명하면 사도세자의 정신증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세자가 고질적으로 앓아 문제가 된 율화병은 대리청정 이후 발병하여 임오화변이 발생하기 4~5년 전부터 심해졌는데,

이때는 이미 세자의 정치적 지위가 극도로 불안해진 이후이므로 병 때문에 세자의 지위가 흔들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세자의 지위가 불안하였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증과 양극성 장애 또한 앓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²⁾ 정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도세자가 장기간의 스트레스 사건을 겪으면서 병적 수준으로 증상이 나타났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설득력 있는 설명일 수 있다.

사도세자의 정신병적 증상이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Jeong 등²³⁾은 한중록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전 전날에 대해 “정신을 잃고 인사도 모르실 적은 환김에 하시는 말씀이 ‘칼을 차고 가서 아무리나 하고 오고 싶다’ 하시니, 조금이나 온전한 정신이면 어찌 부왕을 죽이고 싶다는 극언까지 하시리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 했다고 하였는데, 사도세자가 이러한 언급을 하였다면 조증 상태로 인한 현실 판단력 저하나 정신병적 증상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영조가 세자를 뒤주에 가둔 뒤에 동궁을 뒤져 동궁의 잡물을 모두 불태우도록 했는데, 세자의 잡물에는 유희와 장난에 관련된 기괴한 물건이 많았으나 비밀 무기와 다량의 전쟁 무기는 없었다고 전한다.⁵⁾ 사도세자가 스스로의 안전이나 역모를 도모하기 위해 군사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무기를 모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정신증상으로 인한 기이한 행동이나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혹은 피해사고로 보는 것이 합당할 수 있다.

사도세자에게 정신증상이 있었다면, 이것을 현대의 진단 분류 체계에서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48년(13세)부터 1749년(14세)까지 우울증상, 불안증상과 함께 환시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었을 수 있으며, 1752년(17세)부터 1754년(19세)까지 지속기간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경계증”이라 일컬은 불안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1755년(20세)과 1756년(21세)에는 우울감, 기분과민성, 흥미저하, 의욕저하를 보이며 자기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기분증상으로 인한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었으며, 자살사고와 함께 자살행동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아 우울삽화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1756년(21세) 6~7월에는 처음으로 고양된 기분, 기분과민성, 난폭한 행동이 나타나 조증삽화 발현을 짐작할 수 있는데, 8월에 증상이 다소 호전을 보였다가 같은 해 9월 다시 조증이 악화되었거나 혹은 우울증상으로 전환되었을 수 있다. 1757년(22세) 6~9월에는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사도세자의 본디 성격이 폭력적이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는 바, 현실

검증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단력의 저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 것은 조증삽화에 합당한 증상이라 할 수 있다. 1758년(23세)부터 1759년(24세)에는 관해 상태였음을 시사하나, 1760년(25세)부터 1761년(26세) 3월까지 다시 조증삽화가 발현하여 폭력적인 행동이 두드러지며, 부적절한 언행, 강박증상, 피해사고와 함께 환시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도 의심된다. 1761년 5~9월에는 관해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되나, 1761년 10월부터 사도세자가 사망한 때인 1762년(27세) 5월까지 다시 조증삽화가 발현하여 부적절하고 기이한 언행 및 폭력적인 행동과 과장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며, 관해 시기에는 비교적 온전한 기능적 회복을 보인다는 점에서 삽화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의도와 진정성을 가진 언행이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자살사고를 표현하거나 자살행동에 해당되는 행동이 있으며, 일상생활 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증상이 있었던 것은 우울삽화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우울삽화 시기에 환시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기분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그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인데, 사도세자의 평소 성격에 대한 기술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행동은 그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적인 상태에 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동성 및 폭력적 경향과 더불어 고양되고 과민한 기분, 목표지향적 행동의 증가, 성적 관심의 증가 및 판단력 저하 등은 조증삽화를 가장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조증삽화 시기에 피해사고 또는 피해망상이 동반되었을 수 있다.

우울삽화 및 조증삽화 모두 수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호전되고 또 재발하는 경과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상의 중증도가 심할 때는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었으나, 이러한 증상이 뚜렷하게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현병이나 분열정동장애와 같은 정신병적장애보다는 기분장애를 더욱 시사하며, 반복하여 재발하는 우울삽화와 조증삽화를 볼 때 양극성 장애가 가장 합당한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게 다른 정신질환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물질장애나 불안장애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 병의 경과가 더 나쁘고 자살의 위험도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양극성 장애 환자가 일생 동안 강박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21%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³⁷⁾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사도세자의 의대병은 강박증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모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강박증상 외에도 기분증상에 동반된 편집적 사고

가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우울증상 혹은 조증증상이 심한 시기에 강박증상이 함께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양극성 장애와 별개로 강박증이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양극성 장애와 강박증이 공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어느 경우든 타당성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극성 장애는 I형, II형 및 진단기준 이하의 증상을 포함하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평생 유병률이 4%에 달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양극성 장애 I형만 고려하여도 평생 유병률이 1%에 이른다.³⁸⁾ 양극성 장애 발병의 호발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며,³⁸⁾ 평균 발병 연령은 30세인데,³⁷⁾ 사도세자의 많은 혈족들이 이보다 어린 나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양극성 장애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발병 이전에 사망하여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극성 장애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양극성 장애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양극성 장애 I형의 1차 친족에서 일반인구에 비해 양극성 장애 I형의 출현 빈도가 8~18배 더 많았으며, 모든 양극성 장애 I형 환자의 약 50%는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이 기분장애 환자(주요우울장애가 더 흔함)이다.³⁹⁾ 부모 중 한 명에게 기분장애가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기분장애가 발병할 위험은 10~25%이며, 부모 모두에게 기분장애가 있을 경우 이 위험은 두 배 가량 높아진다. 기분장애에 이환된 가족이 많을수록 기분장애 발병의 위험은 높아지며, 특히 유전적 관련성이 큰 1차 친족에게 기분장애가 있을 경우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⁴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도세자의 병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정신과적 가족력, 특히 기분장애의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도세자의 혈족 중에도 기분장애의 가능성이 높거나, 기분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분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 명성왕후는 감정기복이 있고 충동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기분증상의 문제인지 성격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양극성 성향을 의심할 수 있으며, 숙종 또한 병적인 수준은 아니나 감정기복이 있는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화순옹주와 영빈 이씨의 우울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오래된 증상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의 나이 14세에 어머니 희빈 장씨가 폐출되어 사사된 이후 경종은 점차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모했고 숙종으로부터도 견제와 미움을 받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전해진다.²⁹⁾ 어렵게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그는 건강문제와 더불어 치열한 정권다툼이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는

데,^{41,42)} 경종이 반복적으로 호소한 화열이 오르는 등의 증상은 우울증에서 흔히 호소하는 신체증상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경종의 증상이 우울삽화에 해당된다면, 발병 연령이 비교적 어린 것을 고려하였을 때 주요우울장애보다는 양극성 장애에서의 우울삽화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학의 견해에서 전광증과 전간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범주의 질환이며, 현재의 진단체계와 다른 의학의 개념으로 경종의 증상이 기술되어 있어서 정확한 병명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경종이 주요우울장애 또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우울증상을 겪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시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계군이 자살한 배경에는 모반죄로 몰리는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크게 기여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이 유배된 이후에도 초연한 자세로 18년 이상 유배 생활을 이어가다 67세에 사망한 사례도 있듯이,^{43,44)}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상계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한계가 있으나, 그의 우울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극성 장애의 발병에는 유전적 요인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관여하며, 양극성 장애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이 있을 경우 발병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³⁸⁾ 혈족 중에 기분장애가 의심되는 인물이 있어 사도세자에게 기분장애의 가족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도세자가 영조와의 성격적 차이 및 영조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인한 갈등, 여러 차례 반복된 소모적인 양위 파동 및 치열한 당쟁 등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양극성 장애가 발현하였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도세자를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르게 한 바탕에 당파싸움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사도세자의 정신증상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접근 가능한 역사적 자료의 양이 부족하여 자료 수집에 제약이 많았고, 이로 인해 근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다. 또한 연구자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1차 자료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록을 살펴보면 증상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현대의 정신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허구로 기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와 관련하여 실제 경험한 것을 상세히 기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료를 바탕으로 사도세자의 정신증상에 대

해 처음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하여 그가 당쟁의 희생양이었다는 견해와 그의 정신병적 증상이 원인이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도세자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사도세자의 정신증상 여부에 대하여 정신의학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사도세자의 언행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한중록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사도세자는 여러 차례의 우울삽화 및 조증삽화를 겪었으며, 기분삽화가 재발과 관해를 반복하는 경과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정신증상 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기분장애의 가족력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사도세자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사도세자 · 한중록 · 양극성 장애.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Lee DI. The world dreamed by Prince Sado. Goyang: Wisdomhouse; 2011. p.57-58, 67.
- Kim SY.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Middle of King Yongjo's Age and 'Imohwabeon'. History & the Boundaries 2002;43:57-94.
- Lee BW. Psychoanalytic Note on the Death of Prince Sado. J Korean Psychoanalytic Society 2004;15:228-238.
- Lee DI. The world dreamed by Prince Sado. Goyang: Wisdomhouse;2011. p.115.
- Choe OH. The Vice and Punishment of Sodoseja. Jeonbuchsahak 2001; 24:109-141.
- Hangukgojeonmunhakseon II, III. In: Jeon YJ, editor. Hanjungnok. Seoul: Hongsinmunhwasa;2002. p.61-146.
- Park YK. History of Chosun Kings. Seoul: Woongjinjishikhouse;2004. p.422.
- The Annals of King Yeongjo (Yeongjosillok), vol. 100, the 2nd article of August 26th of Yeongjo 38th year (1762).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Nam ES. Analysis of Prince Sado's Family Using Bowen's Theory-Based on Causes of Prince Sado's Pathological Problem from 'The Memoirs of Lady Hye Kyung'-(dissertation). Seoul: Sangmyung Univ.;2007.
- Lee DI. The world dreamed by Prince Sado. Goyang: Wisdomhouse;2011. p.212, 251-253.
- Lee DI. The world dreamed by Prince Sado. Goyang: Wisdomhouse; 2011. p.259.
- Park YK. History of Chosun Kings. Seoul: Woongjinjishikhouse; 2004. p.368.
- The Annals of King Sukjong (Sukjongsillok), vol.3, the 2nd article of March 14th of Sukjong 1st year (1675).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The Annals of King Sukjong (Sukjongsillok), vol.3, the 1st article of April 1st of Sukjong 1st year (1675).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Park YK. History of Chosun Kings. Seoul: Woongjinjishikhouse;2004. p.374.
- Doopedia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1005672.
- The Annals of King Sukjong (Sukjongsillok), vol.22, the 2nd article of September 16th of Sukjong 16th year (1690).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Doopedia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90658.
- Doopedia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26565.
- Lee HW. A Study on the Diseases of King Hyeonjong, Sukjong, Gyeongjo, Yeongjo in the Joseon Dynasty [dissertation]. Busan: Dongeui Univ.;2005.
- Lee SG. Dr. Lee's 'King's Oriental medicine'. Seoul: Shindonga;2013. p.454-463.
- Kim YS. The tragedy of Prince Sado: a psychoanalytic review. Gyeongungmunhak;1958:19. In: Nam ES. Analysis of Prince Sado's Family Using Bowen's Theory-Based on Causes of Prince Sado's Pathological Problem from 'The Memoirs of Lady Hye Kyung'-(dissertation). Seoul: Sangmyung Univ.;2007. p.68.
- Jeong BS. The tears of Absolute Power, Hanjungnok. In: Foundation Academia Platonica, Yonsei University Library, editors. Humanities lecture Oriental classics. Paju: Book21;2013. p.149-174.
- Seonwongyeobodo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tree/seonwon.jsp>.
- The Annals of King Yeongjo (Yeongjosillok), vol.67, the 2nd article of June 24th of Yeongjo 24th year (1748).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The Annals of King Yeongjo (Yeongjosillok), vol.78, the 1st article of November 27th of Yeongjo 28th year (1752).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Lee DI. The world dreamed by Prince Sado. Goyang: Wisdomhouse;2011. p.45-46.
- Doopedia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00981.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8965&cid=16300&categoryId=1630>.
- Doopedia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900698.
- The Annals of King Jeongjo (Jeongjosillok), vol.4, the 2nd article of October 26th of Jeongjo 1st year (1777).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Doopedia [homepage on the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5565.
- Park YK. History of Chosun Kings. Seoul: Woongjinjishikhouse;2004. p.480.
- The Annals of King Jeongjo (Jeongjosillok), vol.23, the 6th article of January 19th of Jeongjo 11th year (1787).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Lee DI. The world dreamed by Prince Sado. Goyang: Wisdomhouse; 2011. p.53-54.
- The Annals of King Yeongjo (Yeongjosillok), vol.99, the 2nd article of (leap month) May 13th of Yeongjo 38th year (1762).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Sadock BJ, Sadock VA.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10th ed. Baltimore, MD:

-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Wolters Kluwer Business;2007. p.529.
- 38) Hales RE, Yudofsky SC, Roberts LW. Th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Textbook of Psychiatry. 6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4. p.331.
- 39)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Textbook of neuropsychiatry. 2nd ed. Seoul: Jungangmunhwasa;2005. p.185.
- 40) Sadock BJ, Kaplan HI, Sadock VA.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s/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Wolters Kluwer Business; 2007. p.532.
- 41) Park YK. History of Chosun Kings. Seoul: Woongjinjishikhouse;2004. p.403.
- 42) The Annals of King Gyeongjong (Gyeongjongsillok), vol.12, the 3rd article of May 12th of Gyeongjong 3rd year (1723).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
- 43) Park YK. History of Chosun Kings. Seoul: Woongjinjishikhouse;2004. p.314.
- 44) The Annals of King Injo (Injosillok), vol.42, the 1st article of July 10th of Injo 19th year (1641). Available from: <http://sillok.history.go.kr/>.